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of Crisis Management Policy

- Focusing on the Crisisonomy -

Ju Ho Lee^{1#}, Sang Il Ryu²⁺

¹ Sehan University, Namsan-gil, Sinpyeong-myeon, Dangjin-si, Chungnam, Korea

²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research trend of crisis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the literature published in *Crisisonomy* during the last 10 years. We analyzed 212 articles on crisis management published in this journal from 2005 to 2015,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direct insight into up-to-date research focus and method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tre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articles addressing policy orientation, particularly policy diagnosis and suggestions, has increased overtime. Second,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e number of articles employing statistical analysis or case studies has increased. The results provided a few research suggestions for *Crisisonomy* researchers such as establishing the groundbreaking theory for crisis management and policy, utilizing the study results in actual policy evaluation, and analyzing quantitative data for a case study.

Key words: research trend, Crisisonomy, Crisis Management Policy, CEM-TP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위기관리는 2000년대 초까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다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재난관리 방식 전환과 함께 정부조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또 한 차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성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국가적 차원

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때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여전히 재난안전정책의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이 사이 위기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실무적 차원의 문제 해결과제와 쟁점사항을 모색하는데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2003년 이후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주요한 연구동향은 이러한 학계의 노력을 보

The 1st author: Ju Ho Lee, Tel. +82-41-351-6151, Fax. +82-41-359-6100, e-mail. leejuho@sehan.ac.kr

+ Corresponding author: Sang Il Ryu, Tel. +82-51-890-4291, Fax. +82-43-268-2197, e-mail. samuel@deu.ac.kr

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Lee(2009)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학 분야에서 위기관리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지향성으로서 이론 지향보다는 문제해결 및 쟁점 현황 중심의 연구 특징과 2000년 이후의 연구 집중 등의 특징을 밝힌 바 있다. Yang, *et. al.*(2013)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방학 중심의 연구경향을 다룬 바 있으며, 해당 시기 연구들은 제도 연구보다 행태연구 중심이며, 그리고 재난 연구가 1995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함을 밝힌 바 있다. Paek(2010)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위기관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질적 연구 중심, 2003년 이후 연구 증가경향을 밝힌 바 있다. Ryu, *et. al.*(2012)은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통해 본 연구 대상이 되는 한국위기관리논집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을 통해 재난, 위기관리, 테러, 재난관리, 국가위기를 주제로 한 연구 중심성이 높은 경향을 분석결과로 도출한 바 있다. 이는 위기관리 연구가 다른 많은 정부 정책 분야와 실무적으로 연관성이 높으며 융복합적인 학문 특성과 실무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위기관리가 연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위기관리 연구가 양적 증가와 질적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기관리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특히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이전 연구경향 분석과의 사이에서 연구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 위기관리학(Crisisonomy)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설계

1. 연구의 대상

국내의 위기관리 연구 학술단체는 다양하게 자리하

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학술지를 발행하거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학회는 국가위기관리, 한국위기관리, 소방, 화재, 재난방재, 재난관리표준 등 다양한 학술목적의 전문화를 표방하는 가운데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기관리’ 분야의 전문학술단체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은 2005년부터 전문학술지인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간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호를 ‘Crisisonomy(위기관리학)’로 변경하고 국제적 수준의 저널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Crisisonomy(Lee, 2015)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근본적 권리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전통적 군사안보 위기,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위기, 국가사회의 생존성 기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위기, 생활 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 위기, 신종 위기 등 각종 위기 발생의 원인을 밝혀내고 위기관리 법칙과 규칙을 찾기 위한 과학적 연구인 위기관리학 또는 위기학을 의미(www.cemtp.re.kr)하며, 위기관리 연구 또한 전환점의 시기에 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술지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위기 연구의 경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위기관리논집은 그동안 재난관리, 위기관리, 테러리즘, 토석류, 재난, 기후변화, 테러,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 산사태, 소방공무원, 경찰, 우울, 민간조사, 위기, 산불, 가뭄, 거버넌스, 재난관리체계, 안전의식, 이재민, 위협사회, 식품안전, 인권, 재난대응, 위기 커뮤니케이션, 소방행정, 조직몰입, 구제역, 정책변동, HEC-HMS, 민간경비, GIS, 안전, 포괄적 안보, AHP, 위협인식, 강우-유출, 집중호우, 노인, 대응, 장애인, Emergency management, Natural disaster, 위험 커뮤니케이션, 경찰공무원, 생활안전, 식품안전 사고를 키워드(<https://www.kci.go.kr>)로 하는 다 학문분야의 연구들이 종합적으로 게재되어 왔다. 또한

2009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012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매월 발행을 통해 활발한 위기관리 연구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연구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효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성과 면에서도 최근 5년 사이에만도 2011년 79편, 2012년 86편, 2013년 154편, 2014년 154편, 2015년 189편의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2015년 기준 연구인용지수(IF)는 자기인용(포함 0.882)을 제외하고 0.85 수준으로, 정책학 분야 중분류 연구학술지 15종 가운데 7위로 비교적 연구 활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총 논문 922편 가운데 연구인용지수가 통계적으로 확보되는 2015년까지의 811편으로 한정하여 재난안전정책에 직접 관련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212편만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 연구자 간에 1차적으로 선별과정을 거쳐 277편의 연구를 선정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최종 212편만을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사회과학 중심으로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직접 관련성이 높은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토목공학, 수문학 등 공학 계열 연구, 간호학, 심리학 등을 중심으로 학문적 경계가 뚜렷한 연구 결과들은 제외하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심 연구들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정책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연구 목적 측면에서 범죄, 전통적 안보, 테러, 식품 안전, 경제위기, 입법위기, 단순 위험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등의 연구는 제외하였다.

세 번째는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 근무여건, 조직문화, 인식조사, 미시적-지역적 현황분석, 기술 개발·도입 및 기술 개선, 사회변화(식량위기, 기상변화, 물 부족) 예측 수준에 그친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분석도구는 SPSS 21.0을 사용하

였으며,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의 기준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은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행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Kwon(1996)은 행정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연구시기, 연구분야, 연구방법을, Lee(2006)는 조직연구 경향 분석을 위해 연구시기, 연구목적, 연구접근법,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한 바 있으며, Lee(2009)는 위기관리 연구경향분석을 위해 연구시기, 저자 수, 전공분야, 연구초점, 위기관리 단계, 선행연구 검토, 연구접근법, 연구비지원여부, 연구대상 위기 유형,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대상, 통계분석기법 등을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연구시기, 연구자특성(연구자 전공,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방법, 연구초점, 연구대상, 피인용횟수로 구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는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각 년도로 구분하였다.

둘째, 연구자 특성으로 연구자 전공은 제1저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① 행정학 분야와 ② 기타 전공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행정학 분야는 행정학, 소방행정학, 경찰행정학, 재난관리학, 방재학 분야를 동일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전공은 기상학, 공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과학기술,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NGO학, 간호학, 지역학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자 수는 제1저자를 제외한 연구자 수를 의미한다.

셋째, 연구비 지원 여부는 ① 미지원, ② 한국연구재단, ③ 정부지원(연구과제 결과물 포함), ④ 대학연구비로 구분하였다.

넷째, 연구초점은 ① 이론적·이론형성, ② 실제적·문제해결, ③ 쟁점 및 기타(연구방법론 확장 등)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연구방법은 ① 실증분석(설문조사 등), ②

실태분석(현황분석 포함), ③ 국내 사례(비교) 연구, ④ 해외사례(국가 간 비교) 연구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피인용횟수는 0-24 사이의 해당 논문 인용 횟수를 반영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연구논문의 기술통계 현황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연구시기별로는 2005년 12편, 2006년 11편, 2007년 8편, 2008년 12편, 2009년 6편, 2010년 22편, 2011년 21편, 2012년 21편, 2013년 37편, 2014년 28편, 2015년 34편으로 2013년과 2015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별로는 실증분석이 66편으로 가장 많으며, 실태분석은 62편, 사례연구는 17편, 해외사례연구는 44편, 이론 등 문헌분석 및 해석학 연구는 23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초점으로는 실제적·문제 해결 연구(제도개선 및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가 129편으로 가장 많으며, 이론적·이론형성 연구가 74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구방법론의 확장 등 기타 연구는 7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저자의 전공은 행정학 분야가 148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 분야는 64명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 여부는 단독 연구가 114편으로 가장 많으며, 2인 공저는 60편, 3인 공저는 27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미지원 연구가 140편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의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가 3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papers

Analytical criteria	Contents	Frequency	Effective percent	Analytical criteria	Contents	Frequency	Effective percent
Research period	2005	12	5.7	Co-author	non co-work	114	53.8
	2006	11	5.2		1	60	28.3
	2007	8	3.8		2	27	12.7
	2008	12	5.7		3	8	3.8
	2009	6	2.8		4	1	0.5
	2010	22	10.4	5	2	0.9	
	2011	21	9.9	Research funds	unsupported	140	66.0
	2012	21	9.9		by NRF	15	7.1
	2013	37	17.5		by government	18	8.5
	2014	28	13.2		Univ research funds	39	18.4
2015	34	16.0	.00		57	26.9	
Research method	actual proof	66	31.1	1.00	37	17.5	
	reality	62	29.2	2.00	22	10.4	
	case study	17	8.0	3.00	20	9.4	
	international comparison	44	20.8	4.00	21	9.9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23	10.8	5.00	11	5.2	
	formation of theory	74	34.9	6.00	10	4.7	
Research Focus	problem solving	129	60.8	7.00	7	3.3	
	etc.	9	4.2	8.00	1	.5	
	public administration	148	69.8	9.00	6	2.8	
First author' Major	etc.	64	30.2	10.00	4	1.9	
				11.00	3	1.4	
				12.00	3	1.4	
				13.00	2	.9	
				14.00	2	.9	
				15.00	1	.5	
				18.00	2	.9	
				20.00	1	.5	
				22.00	1	.5	
				24.00	1	.5	

편으로 차순위,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 과제 연구가 18편,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는 15편으로 나타났다.

피인용횟수를 살펴보면, 인용이 없는 연구가 57편으로 전체 연구의 26.9%이나, 1회 이상이 73.1%로 타 연구에 직접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회 연구가 1편, 22회 연구가 1편, 20회 1편, 18회 2편, 15회 1편 등 10회 이상 활용된 연구는 20편으로 전체의 9.4%이며, 5회 이상은 55편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 분석과정에서 피인용횟수가 24회로 가장 많은 1편 연구는 2006년 연구로 행정학 분야의 Lee(2006)가 연구한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이론형성 연구로서 이론적 문헌분석 및 인지적·해석적 연구방법이 적용된 연구로 분류하였다. 22회로 차순위 연구는 Cho(2010)가 연구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로 실제적·문제해결형 연구로서 실태분석 연구로 분류하였다. 3순위의 20회 인용된 연구는 Han(2011)의 ‘위험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이론적·이론형성 연구로 실증분석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15회 이상 인용된 연구 중 18회 인용된 연구는 Lee(2007)의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간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Kwon(2005)의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이었으며, 15회 인용 연구는

Lee(2005)의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별 특성 교차분석

1) 연도별 교차분석 결과

연구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도별로 재난안전정책 연구의 연구자 주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2005~2008년까지 정책 중심의 연구는 연구자 전공에 큰 차이가 없이 게재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부터 정책 중심의 연구가 행정학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타 분야 전공자의 재난안전정책 연구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각 연도별로 연구비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연구비 지원 연구가 없었으나 2007년 1편, 2008년 1편이 각각 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2009년 정부 지원과제 1편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등 연구비지원 과제 등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Table 2. Research period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irst author' Major	public	6	6	3	6	5	18	16	19	29	20	20	148
	administration	50.0	54.5	37.5	50.0	83.3	81.8	76.2	90.5	78.4	71.4	58.8	69.8
etc.	Frequency	6	5	5	6	1	4	5	2	8	8	14	64
	%	50.0	45.5	62.5	50.0	16.7	18.2	23.8	9.5	21.6	28.6	41.2	30.2

Table 3. Research period * Research funds

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unsupported	Frequency	12	11	7	11	5	20	15	14	17	14	14	140
	%	100.0	100.0	87.5	91.7	83.3	90.9	71.4	66.7	45.9	50.0	41.2	66.0
by NRF	Frequency	0	0	0	0	0	0	1	2	3	3	6	15
	%	.0	.0	.0	.0	.0	.0	4.8	9.5	8.1	10.7	17.6	7.1
by government	Frequency	0	0	0	0	1	1	0	1	4	4	7	18
	%	.0	.0	.0	.0	16.7	4.5	.0	4.8	10.8	14.3	20.6	8.5
Univ research funds	Frequency	0	0	1	1	0	1	5	4	13	7	7	39
	%	.0	.0	12.5	8.3	.0	4.5	23.8	19.0	35.1	25.0	20.6	18.4

2012년 이후부터 재난안전정책 연구 중 연구비 지원 연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대학 연구비 지원과제와 정부출연 등 정부과제 연구과제의 게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연구비 지원과제가 미지원 과제를 상회하여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각 연도별 재난안전정책 연구의 연구초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논문 가운데 실제적·문제해결형 연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이론적·이론형성 연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은 16편(43.2%)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 주요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의 재난 개념 접근(Lee, 2013), 국가위기 유형화(Lee, 2013) 외에 도시 특성 변화와 재난 영향(Lee, 2013), 정책과정, 정책학습, 조직학습, 전사적 위험관리 이론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이론 적용과 접근법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넷째, 연도별로는 활용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2005년 초기 연구는 국내의 실태 중심의 연구가 가장 많으며, 선행연구에 기초한 문헌분석 또는 인지적·해석적 접근의 연구

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9년부터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태(현황) 분석 연구는 2013년도에 가장 많이 실시되었다.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미국과 일본 사례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가운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사례분석 연구는 국내의 각종 재난 안전사고 사례를 고려할 때, 2010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심층적 국내사례 분석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연구비 지원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연구비 지원 형태에 따른 연구경향 특성을 교차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저자 전공에 따른 연구비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은 미지원 연구가 96편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가 35편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학문 분야의 경우 연구비 미지원 과제가 44편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과제가 9편, 한국연구재단 과제가 7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문 분야 특성

Table 4. Research period * Research focus

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Research Focus	formation of theory	Frequency	3	6	4	3	2	8	8	11	16	4	9	74
		%	25,0	54,5	50,0	25,0	33,3	36,4	38,1	52,4	43,2	14,3	26,5	34,9
	problem solving	Frequency	6	5	4	8	4	12	13	8	21	23	25	129
		%	50,0	45,5	50,0	66,7	66,7	54,5	61,9	38,1	56,8	82,1	73,5	60,8
	etc.	Frequency	3	0	0	1	0	2	0	2	0	1	0	9
		%	25,0	.0	.0	8,3	.0	9,1	.0	9,5	.0	3,6	.0	4,2

Table 5. Research period * Research method

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Research method	actual proof	Frequency	0	1	1	1	3	8	9	8	10	11	14	66
		%	.0	9,1	12,5	8,3	50,0	36,4	42,9	38,1	27,0	39,3	41,2	31,1
	reality	Frequency	9	5	3	7	2	5	1	3	14	9	4	62
		%	75,0	45,5	37,5	58,3	33,3	22,7	4,8	14,3	37,8	32,1	11,8	29,2
	case study	Frequency	0	0	0	0	0	2	1	6	2	3	3	17
		%	.0	.0	.0	.0	.0	9,1	4,8	28,6	5,4	10,7	8,8	8,0
international comparison	Frequency	0	4	1	2	1	4	6	4	8	4	10	44	
	%	.0	36,4	12,5	16,7	16,7	18,2	28,6	19,0	21,6	14,3	29,4	20,8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Frequency	3	1	3	2	0	3	4	0	3	1	3	23	
	%	25,0	9,1	37,5	16,7	.0	13,6	19,0	.0	8,1	3,6	8,8	10,8	

상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비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정책 연구가 많은 한편, 기타 학문 분야에서도 정책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연구비 지원과 연구초점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비 미지원 과제의 경우 이론적·이론형성 연구가 51편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연구비 등 지원과제가 14편으로 차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문제해결형 연구는 미지원 과제가 82편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연구비 지원과제가 24편으로 차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연구는 미지원 과제가 7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실제적·문제해결형 과제는 정부지원 과제가 16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비 지원 형태에 따른 연구방법을 살펴보

면, 실증분석 연구는 미지원 연구가 36편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학 연구비 지원 과제가 12편,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과제가 10편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 연구는 미지원 과제가 43편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학 연구비 지원과제가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례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나 정부지원 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저자 전공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주저자 전공에 따른 연구경향 특성을 교차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저자 전공에 따른 연구초점을 살펴보면 행정학 분야의 경우 실제적·문제해결 연구는 88편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론적·이론형성 연구는 55편으로 나타

Table 6. Research funds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funds				Total
			unsupported	by NRF	by government	Univ research funds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Frequency	96	8	9	35	148
		%	68,6	53,3	50,0	89,7	69,8
	etc.	Frequency	44	7	9	4	64
		%	31,4	46,7	50,0	10,3	30,2

Table 7. Research funds * Research focus

Division			Research funds				Total
			unsupported	by NRF	by government	Univ research funds	
Research Focus	formation of theory	Frequency	51	7	2	14	74
		%	36,4	46,7	11,1	35,9	34,9
	problem solving	Frequency	82	7	16	24	129
		%	58,6	46,7	88,9	61,5	60,8
	etc.	Frequency	7	1	0	1	9
		%	5,0	6,7	.0	2,6	4,2

Table 8. Research funds * Research method

Division			Research funds				Total
			unsupported	by NRF	by government	Univ research funds	
Research method	actual pfoof	Frequency	36	8	10	12	66
		%	25,7	53,3	55,6	30,8	31,1
	reality	Frequency	43	3	4	12	62
		%	30,7	20,0	22,2	30,8	29,2
	case study	Frequency	12	0	0	5	17
		%	8,6	.0	.0	12,8	8,0
	international comparison	Frequency	33	3	3	5	44
		%	23,6	20,0	16,7	12,8	20,8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Frequency	16	1	1	5	23
		%	11,4	6,7	5,6	12,8	10,8

나고 있다. 또한, 기타 학문 분야의 경우도 실제적·문제해결형 연구가 41편, 이론적·이론 형성 연구는 19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의 경우는 행정학 분야의 경우 실증분석이 45편으로 가장 많으며, 실태분석 38편, 국가 간 비교연구가 35편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학문 분야는 실태분석 24편, 실증분석 21편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문분야 간에 연구방법 선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학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초점과 연구방법 선택 교차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연구초점과 연구방법 선택 사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결과, 이론적·이론형성 연구의 경우 실증분석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론적용 등

문헌분석과 인지적·해석적 연구가 21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실제적·문제해결형 연구의 경우 실태분석이 48편으로 가장 많고, 국가 간 비교 연구 36편, 실증분석 34편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 연구의 경우 실증분석 4편과 실태분석 3편, 국가 간 비교연구 2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전문학술지인 ‘한국 위기관리논집’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이론형성, 실제적·문제해결형, 그리고 기타 연구방법론의 확장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파악하여 그 특징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10여 년 간의 짧은 시기에 도 Lee(2009)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사이 행

Table 9. Research Focus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Focus			Total
			formation of theory	problem solving	etc.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Frequency %	55 37.2%	88 59.5%	5 3.4%	148 100.0%
	etc.	Frequency %	19 29.7%	41 64.1%	4 6.3%	64 100.0%

Table 10. Research method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method					Total
			actual proof	reality	case study	international comparison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Frequency %	45 30.4	38 25.7	15 10.1	35 23.6	15 10.1	148 100.0%
	etc.	Frequency %	21 32.8	24 37.5	2 3.1	9 14.1	8 12.5	64 100.0%

Table 11. Research Focus * Research method

Division			Research method					Total
			actual proof	reality	case study	international comparison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Research Focus	formation of theory	Frequency %	28 37.8	11 14.9	8 10.8	6 8.1	21 28.4	74 100.0
	problem solving	Frequency %	34 26.4	48 37.2	9 7.0	36 27.9	2 1.6	129 100.0
	etc.	Frequency %	4 44.4	3 33.3	0 .0	2 22.2	0 .0	9 100.0

정확 분야에서 연구된 것으로 분석한 142편에 달하는 148편의 행정학 분야 연구가 동 학술지에서 게재되었으며, 해당 연구목적에 포함하는 기타 학문분야의 연구 역시 64편으로 총 212편에 이를 만큼 짧은 기간 과거 연구를 넘어서는 위기관리 연구가 본 학술지를 통해 제안되었다. 타 연구 분야를 포함하더라도 2015까지 811편으로 국내 위기관리 관련 학술지와 큰 차이를 보이는 논문 게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구경향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가운데 주요한 분석결과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식품안전, 경제위기, 갈등관리 및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제외한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적·문제해결형 연구가 60.8%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적·이론형성의 연구 역시 34.9%로 학문적 발전에도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석 대상 연구의 특성상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학문적 발전의 기여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2010년 이후 연구비 지원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학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가 18.4%인 반면, 한국연구재단 7.1%,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과제가 8.5%인 점을 고려할 때,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 중심의 지원 확대와 연구활성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국내의 재난안전사고의 이슈화 측면에서 실증분석과 실태분석 연구 외에 국내 사례연구가 8.0%인 점은 현실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서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국내적 특수성에 초점을 둔 연구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외 사례연구가 20.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재난관리 수준을 고려한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이론 형성을 통한 심층적 사례연

구의 증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체계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난 대응 실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국제적 수준의 위기관리학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Crisisonomy'의 재난안전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위기관리체계와 위기관리학의 발전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학술지의 발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융복합 연구의 특성과 학문분야별 연구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분석결과가 일반화 가능성이 비록 낮은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 연구자들의 연구특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활용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도 세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

References

- Cho, Sung Je. 2010.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and System about Emergency-Safety Management.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6(2): 1-18.
- Han, Dong Sub and Hyung Il Kim. 2011. Risk an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ffects on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7(2): 1-22.
- Kwon, Gun Ju. 2005. Improving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Management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2): 79-92.
- Kwon, Kyung Deuk. 1996. An Empirical Analysis of Trends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Focusing on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1967-1995).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0(4): 139-153.

Lee, Jae Eun. 2005. Significance and Necessity for Academic Research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20-32.

Lee, Jae Eun. 200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Research Trend in Korea.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3(2): 1-25.

Lee, Jae Eun. 2006.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2): 19-35.

Lee, Jae Eun. 2007.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Military: Using the Jennings' Model.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3(1): 62-74.

Lee, Jae Eun. 200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1987-2007. *The Korea Contents Society*. 9(6): 300-308.

Paek, Jin Sook. 2010. A Critical Review of the Trends Crisis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6(4): 17-28.

Ryu, Sang Il, Min Kyu Lee, Seok Hwan Jung, and Hyung Kee Kang. 2012. The Trends of Crisis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8(3): 105-120.

Yang, Gi Geun, Ju Ho Lee, Sang Il Ryu, and Min Kyu Lee. 2013. The Trends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II- Focusing on the Field of Fire Administration.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9(10): 53-68.

<http://www.cemtp.re.kr/>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SER000001473&year=2015&viewFlag=detail>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권건주. 2005.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2): 79-92.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게재 논문을 중심으로(1967-1995).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류상일, 이민규, 정석환, 강형기. 2012.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05-120.

백진숙. 2010. 위기관리 연구의 흐름과 동향: 최근 10년간의 국내 학위논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6(4): 17-28.

양기근, 이주호, 류상일, 이민규. 2013.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 II: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9(10): 53-68.

이재은. 2005.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위기관리논집*. 1(1): 20-32.

이재은. 2006.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9-35.

이재은. 2006. 한국 행정학의 조직연구 경향 실증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3(2): 1-25.

이재은. 2007.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Jennings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3(1): 62-74.

이재은. 2009.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6): 300-308.

조성제. 2010.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2): 1-18.

한동섭, 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한국위기관리논집*. 7(2): 1-22.

<http://www.cemtp.re.kr/>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SER000001473&year=2015&viewFlag=detail>

한국의 재난안전정책 연구경향 분석

– ‘한국위기관리논집’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위기관리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특히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이전 연구경향 분석과의 사이에서 연구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 위기관리학(Crisisonomy)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적·문제해결형 연구가 60.8%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적·이론형성의 연구 역시 34.9%로 학문적 발전에도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 중심의 연구비 지원 및 연구 활성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 측면에서 국내의 재난안전사고의 이슈화 측면에서 실증분석과 실태분석 연구 외에 국내 사례연구가 8.0%인 점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서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국내적 특수성에 초점을 둔 연구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재난안전정책, 위기관리, 연구경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위기관리학

Profiles **Ju Ho Lee** : He received his M.A., and Ph.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t Sehan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6.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emergency management theory, budgetary theory, conflict manage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He has published 40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2 co-author books(leejuho@sehan.ac.kr).

Sang Il Ryu : He received his Ph.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t Dong-Eui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3.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anagement, Fire Service Administration, Social Network and Social Policy. He has published 31 articles in journals since 2013(samuel@deu.ac.kr).